

#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 Vol.14 감염병 안전



### CONTENTS

#### 감염병? 그것이 알고 싶다!

- SAFETY CHECK, Q&A ..... 01

#### 계절별 유행 감염병 예방요령

- SAFETY MANUAL ..... 06

####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 SAFETY NOW ..... 12

#### 감염병 그것이 궁금하다!

- SAFETY THINK ..... 02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보건의료과 신은경 & 김현지

- SAFETY INTERVIEW ..... 08

#### 정책 홍보 BOX

- 2022년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 13

#### 안전그래픽으로 보는 감염병 안전 현황

- SAFETY GRAPHIC ..... 04

#### 건강한 세종시민의 첫걸음

- SAFETY TIP ..... 10

#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다가오는 감염병

만약 2019년도 이전의 세종시민이 2022년의 세종시로 시간 여행을 온다면, 그 사람은 아마 길거리와 실내의 수많은 세종시민들을 지켜보며 무엇인가 특이한 점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금세 알아차리셨나요? 모든 사람들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의 존재 말입니다. 그동안 실외 활동 중 미세먼지와 분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던 마스크는 코로나19(COVID-19)라는 전 세계에 크나큰 파장을 일으킨 전염병으로 인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최고의 백신'이라는 정책 브리핑마저 발표될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의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언제나 마스크와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개인 위생관리와, 다수 이용 공간 시설 및 확진자 방문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백신 접종 등은 모두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병원체가 포함된 공기나 물, 음식을 통해 전해지거나, 작은 동물과 벌레에 묻어서 옮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의 대소변이나 체액을 통해 옮겨지는 경우 또한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번 팬데믹(Pandemic) 사태를 겪으며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감염병의 전파는 인류에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렇기에 짧은 시기에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감염병을 '범 유행 전염병'이라 하여 언제나 경계해 왔습니다. 위생이 좋아지고 백신 개발과 항생제 같은 치료제의 개선 등 의학 기술이 발전되어 위험도는 많이 줄었지만, 그렇기에 현재의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일상의 마비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감염병은 국제화라는 매개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단 24시간 내에 왕복이 가능해진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이 쉽게 지구상 곳곳을 누빌 수 있게 되면서 한곳에서 일어난 감염병이 다른 곳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기>의 열네 번째 이야기, '감염병 안전'편은 감염병의 종류와 위험성은 물론 자신과 내 옆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들로 담아보았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그것이 알고 싶다! | SAFETY CHECK, Q&A

# 지피지기 백전백승! 감염병으로부터 지키는 안전한 생활

우리나라는 1954년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오다 2010년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및 개정하면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감염질환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관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법정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규와 관련 관리, 진료의사, 환자 및 환자 가족의 의무와 불이행 시의 벌칙 등을 제정한 것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정과 보완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헛갈릴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안전한 생활을 지키도록 합니다.

## 감염예방방법 팩트체크 Q&A!

### Q1. 전염병? 감염병? 누구세요?

'전염병'은 감염된 '감염원'이 숙주가 되어 다른 숙주로 전파되며 전염시키는 것을 말하고, '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이 동·식물의 생체조직이나 체액에 침입하여 증식·해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 Q2. 감염병이 의심될 때, 어디에 연락하죠?

거주지역의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365일 24시간 운영)로 연락하세요.

### Q3. 감염병이 의심될 때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Q4. 감염병에 걸려 출근을 못하게 됐는데, 해고되는 건 아닐까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외). 그러니까 회사 걱정은 말고 감염병이 의심되면 바로 질병관리청에 신고하고 입원 또는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우리나라 전염병 관련 법률 연혁



1954.02.02  
전염병예방법 제정



1954.02.28  
전염병예방법 시행

1966.04.25  
기생충질환예방법 제정

1966.07.26  
기생충질환예방법 시행

2009.12.29  
- 전염병예방법(변경) 감염병으로 확대 개정  
- 기생충질환예방법(폐지)  
- 감염병예방법 통합(전염병예방법 + 기생충질환예방법)

2010.12.29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0  
코로나(COVID-19) 발생 및 대유행

2021  
코로나(COVID-19)관련 법령 일부 개정 및 지침 확대



# 정확하게 알아두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감염병은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의 병원체가 인간이나 동물의 몸 안에서 증식하여 다수에게 감염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은 전염성과 일부 비전염성 질환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염성을 지닌 질환만을 일컫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들 중 감염병은 무엇인지, 또 감염병의 종류와 증상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예방은 물론 감염병의 확산 또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정의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생매개 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함.

## 감염병의 분류

### • 법정감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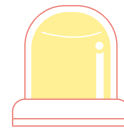
####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과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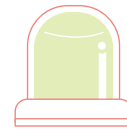
####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 기타 감염병



#### 기생충 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생매개 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의료관련 감염병

환자나 임신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 제1급 감염병

구분	에볼라 바이러스	두창	신종인플루엔자
잠복기	2~21일	7~17일	1~7일(예상)
감염원	병원체, 과일박쥐	인간	인플루엔자A에 감염된 인간
대표증상	출혈(점상, 반상, 점막 등) 등	고열, 복통, 설사, 수포 등	고열, 근육통, 호흡기 증상 등

#### • 제2급 감염병

구분	코로나바이러스-19	결핵	수두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티푸스
잠복기	-	1~2년	10~21일	2~10일	3~60일
감염원	-	결핵균에 감염된 인간	수두 바이러스	소, 양, 염소 등의 가금류	사람
대표증상	-	기침, 객혈, 발열 등	수포 등	발열, 오심, 설사, 빈혈 등	고열, 복통, 설사 등

#### • 제3급 감염병

구분	파상풍	말라리아			
		삼일열원충	열대열원충	사일열원충	난형열원충
잠복기	1일~수개월	단기) 12~18일 장기) 6~12개월	9~14일	18~40일	12~18일
감염원	오염된 상처로 침투된 파상풍균	1) 얼룩날개모기속에 속하는 암컷 모기에 의해 전파 2) 드물게는 혈액, 장기이식, 주사기 공동사용 등의 혈액에 의한 전파			
대표증상	전신파상풍, 국소파상풍, 두부형 파상풍, 신생아 파상풍	권태감 상승에 의한 지속적 발열, 두통, 설사 등	오한, 기침, 설사 등	삼일열과 유사하나 2일~최대 50년까지도 재발 반복 가능	삼일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재발 가능

#### • 제4급 감염병

구분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흡충증		
				간	폐	장
잠복기	1~4일	최대 1개월	1~3개월	3~4주	6~8주	7~8일
감염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자연계 유일한 숙주		자연산 민물고기	- 자연계 종숙주 (호랑이, 개 등) - 덜 익힌 참게줄, 가재줄 등	- 자연계 종숙주 (개, 고양이 등) - 주로 은어회 등의 날음식
대표증상	38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출혈, 염증, 육아종 형성 등	자각증상 없음 (*간혹 장출혈의 증례 있음)	대부분 증상이 경증	임상증상(잠행성), 합병증(기관지염, 기흉, 농흉 등) 등	설사와 복통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https://www.kdca.go.kr/npt/>)

# 감염병 안전,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2009년 12월 보건복지부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감염병의 원인인 ‘감염원’이 숙주에 감염되어 발병하며 다른 숙주로 전파되면서 확산되는 특징을 가질 때 이를 감염성 질환의 분류로 ‘전염병’이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원으로 인해 발생하기에 예방과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안전에 관한 준수와 관심은 나와 내 주변 모두의 건강은 물론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것임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통계청,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 2020 전국 법정감염병 신고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1급	18,996	1,867	7,801	2,839	1,081	845	673	149	14,450	1,208	1,163	1,653	837	560	2,424	1,325	416
제2급	11,517	4,719	3,364	3,888	2,471	1,775	1,337	392	16,724	1,842	1,828	2,325	2,752	2,246	3,082	5,371	1,202
제3급	2,123	2,121	618	959	536	382	531	72	2,947	363	364	893	851	1,824	984	2,539	296

## 2020 세종시 법정감염병 신고 현황

제1급	신종감염병증후군	149
제2급	수두	280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A형간염	23
	유행성이하선염	67
	폐렴구균 감염증	1
	성홍열	12
	카바페뎀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5
	E형간염	2
제3급	파상풍	1
	B형간염	2
	C형간염	30
	말라리아	1
	레지오넬라증	1
	쯔쯔가무시증	30
	렙토스피라증	4
큐열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	

\* 2020년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코로나19(COVID-19)로 신고·보고된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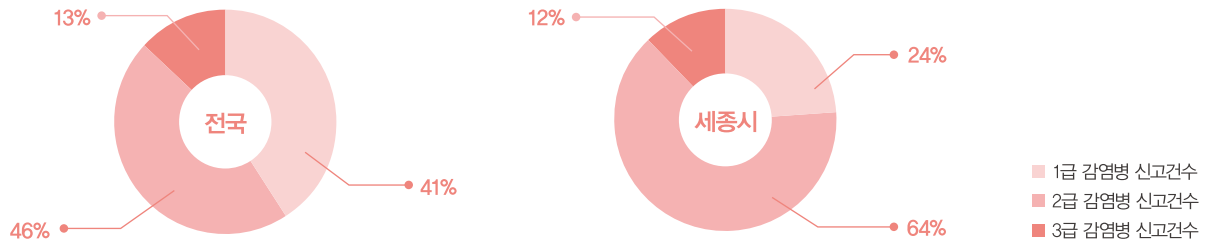
## 2020 법정감염병 월별 신고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1급	11	2,920	6,638	751	615	1,141	1,044	5,473	3,708	2,445	7,326	26,215
제2급	11,173	7,036	4,568	4,084	5,210	5,674	5,547	5,146	4,229	4,719	5,036	4,413
제3급	1,350	1,086	983	1,139	1,133	1,409	1,500	1,281	1,282	2,107	3,686	1,447

### 2020 전국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제1급	보툴리눔독소증	1	신종감염병중후군	60,727
제2급	수두	31,430	풍진	2
	홍역	6	수막구균 감염증	5
	장티푸스	39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
	파라티푸스	58	폐렴구균 감염증	345
	세균성이질	29	한센병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70	성홍열	2,300
	A형간염	3,98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9
	백일해	123	카바페뎀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18,113
	유행성이하선염	9,922	E형간염	191
	제3급	파상풍	30	브루셀라증
B형간염		382	신증후군출혈열	270
일본뇌염		7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64
C형간염		11,849	댕기열	43
말라리아		385	큐열	69
레지오넬라증		368	라임병	18
비브리오패혈증		70	유비저	1
발진열		1	치쿤구니야열	1
쯔쯔가무시증		4,47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43
렘토스피라증		11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

### 2020 감염병 신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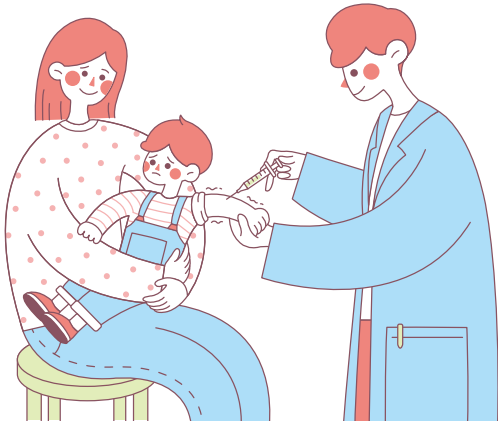


#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계절에 맞춰 예방해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날씨와 기후, 습도는 각기 다른 감염병의 전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계절마다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인지와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예방요령에 있어 개인 위생관리는 시기에 상관없이 매우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계절에 따라서 감염병의 위험성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염병 유행 시기에 맞춰 예방요령을 준수하고 꾸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사계절 내내 나의 건강을 지키는 한편 전파를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사람의 건강까지도 지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절별 유행하는 대표적인 감염병과 올바른 예방 요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예방접종만 하면 '홍역'을 치르지 않아요

•봄



홍역은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MMR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합니다. 특히 홍역 유행 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2회 모두 접종 확인 후 미 접종 시에는 출국 4~6주전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 두고두고 우리 아이 괴롭히는 '수두'

•봄



수두는 초봄에 어린이들이 많은 곳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집단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염기간동안 격리 후 접촉력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 하도록 권장합니다.

## 더러움 속에 피는 얼룩 '장티푸스'

•여름



장티푸스의 주된 감염경로가 오염된 병원체 보균자의 분뇨이기에 화장실 위생을 깨끗이 하고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체 보균자는 식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비브리오패혈증', 익혀 먹으면 안 걸려요!

•여름



여름철 어패류는 가급적 -5°C 이하로 저온 저장하거나 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은 후 60°C 이상으로 가열처리 이후 섭취해야 합니다.

## 사계절 유행 감염병 예방 안전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①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도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므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합니다.
- ② 부득이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콘돔을 사용해야 합니다.

### 결핵(tuberculosis)

- ① 결핵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후 1개월 이내에 BCG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합니다.

### B형 간염

- ①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고 면도기, 칫솔, 타올 등은 공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② 의료기구나 오염된 기구, 기물 등은 충분히 세척,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 ①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②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을 진행합니다.

## 야외활동에 주는 초대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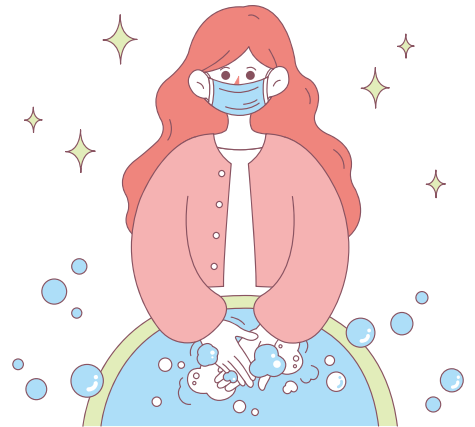
●가을



신증후군출혈열은 야생 설치류의 배설물 속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설치류 서식지인 잡초를 제거해야 하며 군인, 농부, 캠핑이나 등산, 낚시를 즐기는 야외 생활자는 예방접종을 맞도록 합니다.

## 진화하는 바이러스, 최고의 백신은 위생

●겨울



매년 10~12월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재채기할 때는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리는 예절을 지켜주세요.

## 잔디가 편안해 보여도 눕지 마세요

●가을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려면 잔디 위에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행지역 방문 시 가능한 피부의 노출을 적게 하고 귀가 후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해야합니다. 만약 벌레에 물린 상처가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 동물들의 이뤄질 수 없는 우정

●겨울



공수병(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게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하며, 애완동물과 야생동물의 접촉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사람 또한 야생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며 만약 동물에게 물릴 경우 상처 부위 소독 후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은경 팀장(좌), 김현지 주무관(우)

**INTERVIEW**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보건의료과 신은경 팀장 & 김현지 주무관

# 세종시 보건소, 방역 요정들을 만나다!

주춤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길. 그 길 끝에 서 있는 우리가 다시 희망을 품고 힘을 낼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K-방역의 아이콘, 방역 요정들 덕분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보건의료과의 신은경 팀장 & 김현지 주무관과 함께 일상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윤숙 작가(이하 이윤숙) |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은경(이하 신)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보건소 보건의료과 감염병관리팀장, 신은경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생활 한지가 어느덧 30년이 됐는데요, 건강증진 업무, 식품위생 업무 등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감염병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현지(이하 김) |**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무원 생활 3년을 막 채워가고 있는 김현지 주무관입니다. 2년 넘게 감염병관리담당 팀에서 감염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87종 중에 에이즈, 결핵, 코로나 같은 일부 감염병 3-4종을 제외하고는 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 그럼 코로나 관련 업무는 전담팀이 따로 하나요?

**신 |** 코로나19가 발병할 당시에는 전담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팀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까지 병행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5월 마지막 주부터 감염병 관리 업무를 확대해서 진료도 개시하고 접종이나 그간 하지 못했던 사업들도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는 어떤 업무들을 하셨나요?

**신 |** 코로나 환자들이 다녀간 곳을 역학조사 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검체 채취를 했습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곳이기도 한데요, 시료 채취 과정에서 접촉을 최소화해 대량 검사를 할 수 있었죠. 1년 넘게 보건소 직원들은 주말도 없이 숨 가쁘게 일을 했습니다.

**김 |** 코로나19 발병 이후 코로나 관련 문의전화량이 많이 와서 코로나 전담 핫라인을 새롭게 만들어서 비상 방역반을 운영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 역학조사반 비상근무, 선별진료소 비상근무, 전화 대응 비상근무, 이렇게 3개팀으로 나눠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많다 보니까 전혀 실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죠.

**이 |**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코로나19 대응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신 |** 검체를 채취할 때 담당직원들은 보호복을 입고, 안전 가림막,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후 검사자들을 응대하는데요, 보호복이 4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재감염 우려 때문에 한번 벗으면 다시 입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 섭취를 줄여야 하는 거죠. 게다가 무더위와 추위를 감내하면서 버텨야 했습니다. 우리가 방역 최전선에 있는 거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더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이 | 힘든 상황이었지만 보람도 크셨을 것 같아요?**

**신 |** 세종시보건소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인데요, 고생한다며 간식 같은 걸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아이들이 편지도 많이 보내줬고요. 세종에는 정부 부처들도 많잖아요. 그곳의 공무원들이 확진되고 나니까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인지 선물들을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비록 몸과 마음은 고단했지만 알아주고, 챙겨주시는 게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 그럼 코로나 발생 이전에 담당하셨던 감염병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김 |** 법정 감염병 87종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나뉩니다. 위험도나 전파 가능성, 격리 수준에 따라 나뉘는 겁니다. 현재는 코로나 빼고 제가 모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 사스, 메르스 같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건데요, 터지면 비상이라 새벽이라도 즉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할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제2급, 제3급 감염병이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두, 볼거리, A형 간염, B형 간염, 일본 뇌염, 비브리오패혈증 같은 게 있습니다.

**이 | 그럼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건가요?**

**김 |** 의료진들이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합니다.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역학조사를 꼼꼼하게 하고요, 개별 사례는 단순 역학조사로 끝나는데, 역학적 연관성이 의심되는 2인 이상의 집단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세종시청 유관 부서와 함께 시도 역학조사반을 꾸려 집단 발생 건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 세종시의 감염병 관련해서 전반적인 실태는 어떤가요?**

**김 |** 세종시는 인구 특성상 전국 출산율이 1위이고,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인지 수두나 유행성 이하선염 같은 어린이 호흡기 감염병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는 A형 간염이 세종시에서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식을 많이 하고, 향체가 없는 40대 미만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걸리기가 쉬운 감염병인데요, 이것 또한 세종시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유행이지 않나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 그럼 요즘 같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 |** 여름철에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유행을 하는데, 쉽게 말해 식중독입니다. 설사, 구토와 같은 장염 증상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증상만 놓고 봤을 때는 원인이 명확치 않으니까 저희는 균에 따라 결론을 내립니다. 집단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통 사람 간 전파보다는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때 집단으로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식중독 관련 비상 방역 근무를 하며 세종시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 식중독을 비롯한 감염병 관련 예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김 |** 감염병 대상 예방 접종이 있다면 예방 접종이 최우선이겠죠. 예방접종이 있는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은 MMR 백신을 접종해서 수두나 볼거리 등을 예방할 수 있고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평소 손씻기를 생활화 하고, 설사나 구토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음식을 조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예방접종을 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 세종시 보건소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신 |** 전국에서 하수관로 방역 같은 걸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2017년부터 유충 구제 방역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투입해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긴급 방역팀을 꾸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에 진드기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를 설치해 놔고요,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피제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 감염병 관련 업무를 이어오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신 |** 감염병이 언제 생길지 몰라 늘 좌불안석합니다. 감염병은 한번 생겼다 하면 대형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평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안 바쁜 거 같아요. 하지만 담당자는 관련 전화만 받아도 두근두근하는 거죠. '설사 환자 있습니다. 11명입니다.' 이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공무원이 모두 정시에 퇴근한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면 출동을 위한 비상용 가방을 싸서 바로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그게 퇴근 시간 이후에라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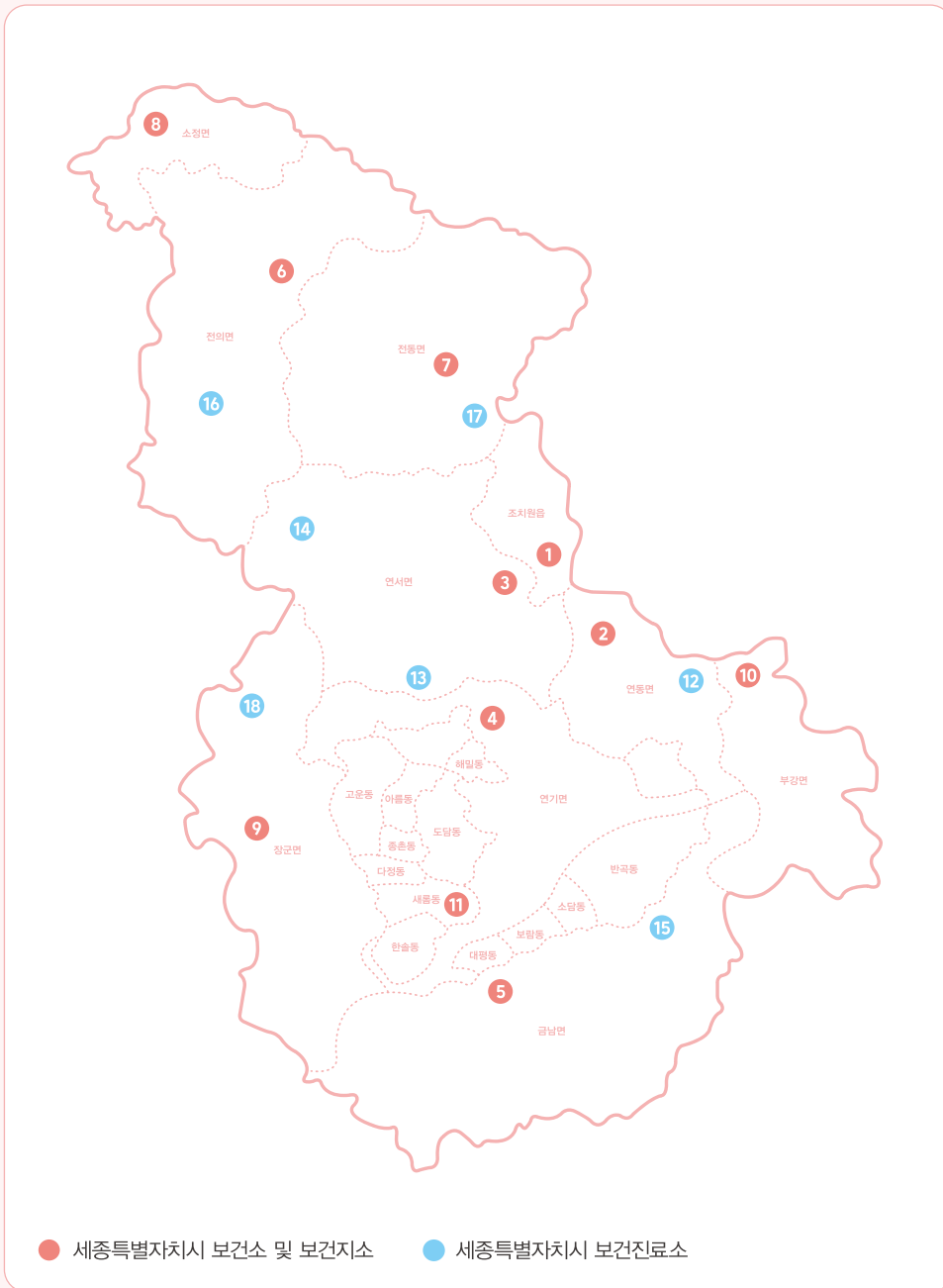
**이 |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 |**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실천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만약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조기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볼 때,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증상을 말씀해 주신다면 진단도 정확해지고 또 빠른 처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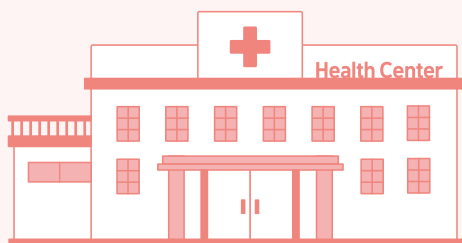
TIP 01.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정보

세종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정보를 소개합니다.



- 1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첨로 32  
 044-300-2000
- 2 연동면보건지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송길 20  
 044-301-2221~4
- 3 연서면보건지소**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대첨로 238  
 044-301-2261~3
- 4 연기면보건지소**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81  
 044-301-2211~3
- 5 금남면보건지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57  
 044-301-2241~3
- 6 전의면보건지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만세길 20-12  
 044-301-2271~3
- 7 전동면보건지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386  
 044-301-2281~3
- 8 소정면보건지소**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구길 204  
 044-301-2291~3
- 9 장군면보건지소**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기초교길 11-1  
 044-301-2251~4
- 10 부강면보건지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5길 38  
 044-301-2231~3
- 11 남부통합보건지소**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044-301-2400
- 12 응암보건진료소**
- 13 와촌보건진료소**
- 14 쌍류보건진료소**
- 15 황용보건진료소**
- 16 양곡보건진료소**
- 17 송곡보건진료소**
- 18 송학보건진료소**





TIP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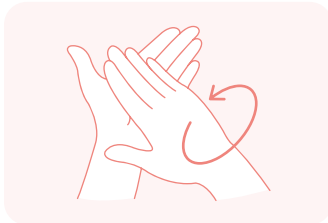
# 생활 속 감염병 예방 안전 수칙

감염병 예방은 개인위생수칙 준수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무심히 지나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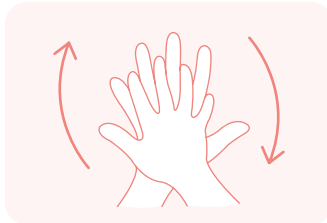
① 손바닥, 손톱 등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씻기

STEP 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STE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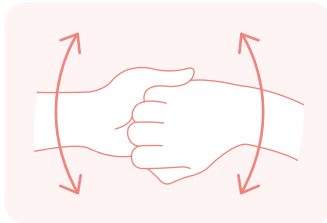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STEP 3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주세요

STE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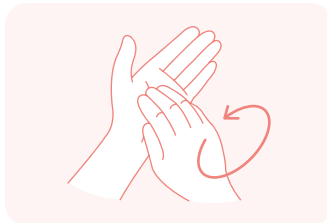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STEP 5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 주세요

STE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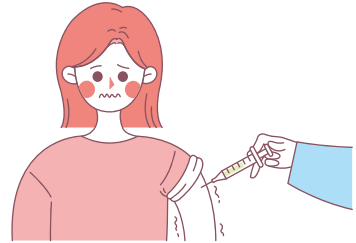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②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③ 예방접종 받기



④ 안전한 물과 음식 먹기



⑤ 야외 활동 시 감염 매개체 조심하기





SAFETY NOW |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수칙, 안전할 수록 한 번 더 실천합시다.

2019년 12월 등장한 이후로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COVID-19)가 엔데믹(Endemic)으로 접어들었다. 엔데믹이라고는 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느슨해진 마음과 고온 다습한 여름 날씨 사이로 언제든, 또 다른 감염병이 일상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거리 두기가 완화된 지 두 달 남짓, 해외에서 '원숭이두창'에 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더니 지난 6월 22일, 국내 첫 확진자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정착되더라도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의 경고가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매일경제에서 진행한 전문가 30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이 찾아올 가능성을 '높음(43.3%)이나 '매우 높음(53.3%)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또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탈수현상이 생기거나 체력 저하가 불가피해져 인체의 항상성이 깨지기 쉽다. 이 틈을 타 음식물을 매개료하는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을 비롯해 대장염, 전염성 간염, 살모넬라증 등의 감염질환이 쉽게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주로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와 건물의 냉·온수 등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형태로 흡입돼 감염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비교적 경미한 증상인 폰티악열의 형태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만성폐질환자와 고혈압환자 등 만성질환자와 면역저하자, 50세 이상, 흡연자 등에서 발생한다. 특히 레지오넬라 폐렴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비브리오패혈증 역시 바닷물 온도가 18°C 이상 올라가는 매년 5월~6월에 발생하기 시작해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다.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해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전사고가 안심하는 순간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감염병도 마찬가지다. 엔데믹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완화된 거리 두기로 느슨해진 틈을 타 또 한 번의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칠 것을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안전한 일상에서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하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도 예방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 질병관리청에서는 평소 손을 잘 씻는 습관은 본인 건강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스스로 하는 예방접종'이라며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이처럼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한 습관을 바탕으로 한 면역력 키우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그것이다. 이미 알고 있다고, 이젠 지겹다고 미뤄둔다면 감염병은 언제고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 것이다.

글 | 유정(오세이프 에디터)



## 세종시민을 위해 세종시가 다 책임질게요 2022년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개요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 청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2022.4.29 ~ 2023.4.28(1년)	세종시청에서 일괄 가입·납부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로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1577-5939)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상법 제662조)

### 보장 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후유장애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1,000만 원 (부상 등급 1급~5급)
행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행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300만 원
행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행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 발생	~300만 원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애	강도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실에 한하여 1사고당 변호사 착수금 80%	~1,000만 원

### 2022년 추가된 보장 내용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만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500만 원 (부상 등급 1급~5급)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 진료를 받은 경우 (세종시는 충남대학교 병원, 연계이 세종병원이 해당)	20만 원

※ 만15세 미만 사망담보 제외(상법732조)      ※ 상해 후유장애는 3~100%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 유증상자\* 예방수칙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지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s://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발행일 2022년 08월

문의 안전정책과  
044-300-3613~4

기획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디자인·제작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OSAFE)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의 발간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QR code

홈페이지(sejong.go.kr)와 QR 코드로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